

# 향/장

## ALL ABOUT BEAUTY

당신을 더 아름답게 할 뷰티 노하우

여름철 지친 피부를 위한 레시피 101

쾌적한 골프를 위한 에센셜 아이템

열대야를 이기는 숙면 팁

AUGUST 2020 VOL.622







SINCE 1958

<항장>은 1958년 '화장계'라는 이름으로 창간한 이후 현재까지 63년간 622호를 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월간 뷰티 매거진입니다.



MAIL  
HYANGJANG@MCKOREA.COM



WEB  
WWW.APGROUP.COM



COPYRIGHT 2020  
AMOREPACIFIC

(주)아모레퍼시픽의 동의 없이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02 NEWS- 도시 피부를 위한 듀오
- 04 TRENDS- 파운데이션-프리 메이크업
- 06 SPECIAL 애프터 선 케어의 모든 것
- 14 PRODUCT 가벼운 스킨케어를 위하여
- 20 MAKEUP 서머 나이트 메이크업
- 26 MAKEUP PLAY 립스틱 200% 활용 팁

- 30 PRODUCT 해라
- 32 PRODUCT 설화수
- 34 PRODUCT 아모레퍼시픽
- 36 PRODUCT 바이탈뷰티
- 38 ICON 언택트 시대의 아티스트
- 42 ISSUE 여름철 골퍼를 위한 에센셜 아이템

- 46 REVIEW 사위의 즐거움을 더하라!
- 48 HEALTH 열대야를 이기는 법
- 50 REVIEW 믿고 보는 품평단의 생생 후기
- 52 PLACE 배지테리언을 위한 레스토랑
- 54 ESSAY 정현주 작가의 아름다운 에세이
- 56 EDITOR'S PICK 8월의 강추템

발행일 2020년 8월 1일 발행 통권 622호 발행인 서경배 편집인 안세홍 발행 (주)아모레퍼시픽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인쇄 (주)태신인쇄 02-853-6574 인쇄인 서명현 제작 문의 이기태 제품 문의 080-023-5454 기획·편집 MCK Publishing Co., Ltd 에디터 최향진, 김희진, 이성진, 안새를 디자인 www.pentagramgraphic.co

※<항장>은 WWW.APGROUP.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전국의 아모레 카운슬러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는 방문판매용 매거진입니다.

## 스킨 릴리프 선밀크 워드 리프세이프

연약한 피부와 산호초까지 생각한 착한 포뮬러로 자연스러운 톤업과 안티폴루션을 선사하는 논나노 무기 자외선 차단제\*



primera



# 시티 안티에이징

피부는 늘 외부 환경 요인과 스트레스에 자극을 받고

하루하루 늙어가고 있다. 도심속 피부 노화를 세포부터 잡아주는 시티 안티에이징 아이템.

헤라의 헤라-유스 액티베이팅 셀 세럼과

셀 에센스 바이옴 플러스로 현명하게 관리하자.



헤라 셀에센스 바이옴 플러스 리필 150ml 5만원.

헤라 셀에센스 바이옴 플러스 150ml 6만5천원.

헤라 유스 액티베이팅 셀 세럼 40ml 9만5천원.  
헤라 유스 액티베이팅 셀 세럼 리필 40ml 8만원.

바이러스, 세균, 미세먼지가 가득한 도시에서 피부는 눈에 띄게 지치고 빠르게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 피부 안티에이징을 시작하려고 마음 먹었거나, 도심속 노화 원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싶은 타입이라면 이 제품들을 주목하자.

업그레이드 된 헤라 셀 에센스 바이옴 플러스와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피부 광채를 되찾아 주는 유스 액티베이팅 셀 세럼이 바로 그것. 가장 쉽게 안티에이징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세안 후 처음 바르는 퍼스트 에센스를 활용하는 것이다. 출시 이후 지금까지 베스트셀러로 사랑 받고 있는 셀 에센스는 세포 레벨의 연구를 적용해 탄생한 바이옴 플러스™를 탑재, 피부 생명력의 근원인 피부 세포 안티에이징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새롭게 리뉴얼된 3세대 셀 에센스의 핵심은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 아모레퍼시픽의 특허 성분인 녹차 유래 프로바이오틱스가 미세먼지나 도심속 오염 물질에 지친 피부 장벽을 강화해 주고 탄탄하게 만들어 준다. 또한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인 생체수와 흡사한 셀-바이오 플루이드 싱크™ 2.0기술을 적용해 유효성분을 피부 속까지 빠르게 전달하는 동시에 촉촉한 수분을 채워주는

것도 특징. 화장 솜에 덜어 세안 후 건조한 부분에 올려둔 뒤 흡수시키면 팩처럼 활용할 수도 있다.

매일 사용하는 세럼도 안티에이징 성분이 충분히 들어있는지 체크해 보자. 헤라 유스 액티베이팅 셀 세럼은 도심에 사는 여성들이 겪는 다양한 외부 환경의 변화와 그로 인한 피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티 안티에이징 세럼이다. 유스 액티베이팅 셀 세럼의 핵심 성분은 바로 세포 배양액에서 추출한 피루베이트. 세포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성분으로 항산화 작용은 물론, 피부가 즉각적으로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유효 성분을 빠르게 전달하는 중요한 성분이다. 바르면 피부에 빠르게 스며드는 가벼운 제형으로 끈적임이 없고 피부 손상 속도보다 피부 회복속도를 높여 그날그날 노화 원인이 쌓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피부 톤과 결, 탄력, 수분, 미세주름 등 다각도로 케어가 가능하다. 두 아이템 모두 리필 용기를 따로 구매할 수 있는 친환경적 디자인으로 출시된 것은 덤. 피부 생존력은 높이고 숨어있는 광채를 되찾기 위한 솔루션, 헤라 유스 액티베이팅 셀 세럼과 셀 에센스 바이옴 플러스로 손상된 피부 세포부터 탄탄하게 회복시켜 보자. **10**

EDITOR: AHN SAE FROM





# 파운데이션 프리 메이크업

뷰티 미니멀리즘. 애프터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

메이크업 단계를 최소화하는 파운데이션 프리 메이크업 열풍이 뷰티업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LOEWE



PRADA

STELLA MCCARTNEY



헤라 선메이트 프로텍터 SPF50+ / PA+++ 50ml, 3만8천원.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도시 피부를 위한 자외선 차단제.



VALENTINO



LEMAIRE

ISABEL MARRANT SAINT LAURENT



ROCHAS



헤라 루즈 홀릭 익센셔널 #248 모즈 코랄, 3만8천원. 입술 주름에 끼지 않고 매끄럽게 발리는 은은한 코랄 립스틱.

애프터 코로나 시대의 삶은 뷰티 루틴 역시 백팔십도 바뀌어놓았다.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면서 마스크에 쉽게 묻는 파운데이션 대신 톤 업 효과가 있는 자외선 차단제와 입술에 생기를 더해주는 립 제품으로 완성한 파운데이션 프리 메이크업이 일상이 된 것. 데이터플러스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5~34세 한국 여성의 64.7%가 파운데이션 프리를 이미 실천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추세 속에서 탈파운데이션의 첫 주자로 떠오르는 제품이 우수한 자외선 차단제다. 스킨케어 후 자외선 차단제만 가볍게 바르고, 눈에 띄는 잡티는 극소량의 컨실러나 파운데이션으로 가리는 등 파운데이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건강한 피부로 표현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가 중요한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으로 떠오른 것. 잡티와 기

미를 예방하는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춘 건 물론, 가벼운 톤 업 효과로 얼굴을 화사하게 밝혀주는 기능성 자외선 차단제는 파운데이션 프리를 위한 가장 큰 조력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파운데이션 프리의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혈색. 가벼운 피부 메이크업과 함께 본연의 입술처럼 자연스러운 색을 띠는 립 제품을 입술과 볼에 발라 투웨이로 사용하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글로시한 코랄 핑크 립스틱은 생기 있는 입술 표현은 물론, 광대뼈에 손으로 톡톡 두드려 바르면 자연스러운 크림 블러셔로도 활용할 수 있는 멀티 제품. 자외선 차단 기능은 기본이고 피부 보정 효과까지 갖춘 우수한 자외선 차단제와 화사한 피부 표현을 도울 립 제품으로 생기 있는 파운데이션 프리 메이크업에 도전해보자. **LD**

EDITOR: AHN SAE ROM, PHOTOGRAPHY: WWW.GETTYIMAGESKOREA.COM



# 여름은 즐겁게, 피부는 건강하게!

바이러스 공포에서 잠시 벗어나 신선한 공기와 따사로운 태양의 손길을 만끽한 것도 잠시. 내리쬐는 자외선과 소금기 가득한 바닷바람, 그리고 영망이 된 데일리 루틴 탓에 피부는 처참한 몰골이 되어버렸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지키면서 태양의 계절에 평화롭게 인성을 고티할 방법은 없을까? 후유증 제로에 도전하는 애프터 선케어 팁을 준비했으니 기억하도록!

## 가장 쉽고 효과적인 관리는 예방!

일반적인 상태에서 피부 온도는 체온보다 낮은 31°C 정도. 하지만 녹아내릴 듯 강렬한 여름철 태양 아래선 단 15분만 서 있어도 피부가 금세 40°C 안팎까지 달아오른다. 하물며 직사광선이 그대로 내리쬐는 해변이나 풀사이드에서 라면 말할 것도 없다. 단 몇 십 분만 머물러도 일광 화상을 비롯해 기미와 주근깨 같은 색소침착에 두드러기까지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고 즐거운 바캉스를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 이럴 때 어떤 스킨케어보다 우선해야 하는 건 자외선 차단제다. 물과 땀에 강하고, 여러 번 덧바르기 좋은 가벼운 질감과 휴대성을 지닌 자외선 차단제를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여름을 보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보내기 위한 첫 단계!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듯 애프터 선케어 역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헤라 선메이트 레포츠 프로 워터프루프 SPF50+/PA++++. 야외 활동에 적합한 아웃도어용 선크림. 70ml, 3만6천원.

설화수 상백크림 SPF50+/PA++++. NO.1 크리미 글로우 부드러운 크림 타입의 저자극 브라이트닝 선크림. 50ml, 8만5천원.

photographer CHOI MOON HYUK(인물), CHOI SEUNG HYUK(제품)  
editor KIM HEE JIN(CONTENT ME)



## 신나게 여름을 즐기고 나면 피부는 늙는다

여름철 강력한 자외선은 일차적으로 피부 속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탄력성 유를 분해하는 효소를 활성화해 피부를 늙고 처지게 만들고, 곧이어 염증 반응까지 일으켜 손상을 가속화한다. 샘솟는 땀과 왕성하게 분비되는 피지 때문에 모공은 점점 넓어지는 데 반해 뜨거운 태양 빛에 바짝 마른 피부는 외려 건조해

모공과 모공 사이에 각질이 두껍게 쌓이는 것도 문제. 피부의 재생과 회복 능력을 높여주는 탄력 강화 제품이나 안티에이징 제품으로 늙고 처진 피부를 끈뭇하게 회복시키고, 강력한 보습으로 각질과 주름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 냉장고에 넣어두고 차게 해서 사용하면 손쉽게 진정 및 쿨링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아이오페 레티놀 포링클 0.3%**  
고농축 레티놀 성분을 담아 주름 개선 효과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세럼. 20ml, 13만원.



**프리메라 알파인 베리 워터리 오일-프리젤 크림**  
기본 좋은 쿨링 효과를 주는 산뜻한 사용감의 수분 젤 크림. 50ml, 3만7천원.



**헤라 아쿠아볼릭 하이드로-젤 크림**  
시원한 청량감으로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수분 젤 크림. 50ml, 5만8천원.



**프리메라 리페어인 시카 크림**  
건조로 인해 손상된 피부를 개선해주는 피부 장벽 강화 크림. 40ml, 3만5천원.



**리리코스 마린 하이드로 앰플 EX 오리지널**  
특화된 보습 성분이 피부를 즉각적이고 지속적으로 촉촉하고 건강하게 가꿔주는 집중 보습 프로그램. 5ml×12개입, 11만원.

## 피부를 지키기 위한 골든 타임을 확보하라

휴가지에서 돌아와 그제야 피부 관리에 돌입한다면 애프터 선 케어는 사실상 실패한 거나 다름없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애프터 선 케어의 골든 타임은 노출 후 6~12시간 이후에는 피부 속에 퍼져 있는 활성산소로 인해 손상이 광범위하게 일어나 레이저 같은 전문적인 치료조차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자외선에 자극받은 즉시 피부가 달아오르는 것 하면, 4~5시간 뒤에 서서히 증상이 나타나 하루 이틀 동안 지속되는 자연 회복도 흔하다는 사실. 살짝 열감이 느껴진다 싶더라도 신속한 쿨링 케어로 화기를 빼주는 것이야말로 쓰라리고 껍질이 벗겨지거나 물집이 생기는 등 최악의 사태로 발전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애프터 선 케어의 핵심이다. 흔적이 남지 않도록 시원한 수딩 케어까지 더하면 더욱 좋다.





### 여름의 흔적을 지워주는 미백 관리

당장 눈에 띄는 울긋불긋한 홍조와 붉게 달아오른 피부를 진정시키는 것이 애프터 바캉스 케어의 첫걸음이라면 마지막은 미백이다. 얼룩덜룩 칙칙한 피부 톤을 밝히고, 눈에 띄게 늘어난 주근깨나 기미 같은 잡티와 각종 트러블 자국을 없애는 화이트닝 케어까지 마쳐야 비로소 바캉스 이전의 피부에 근접할 수 있다. 민간요법으로 흔히 하는 감자나 오이를 이용한 천연 팩은 자칫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켜 영구적인 색소침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한다. 비타민 C 등의 미백 성분이 농축된 앰플이나 에센스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눈에 띄는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단, 고기능성 화장품이므로 반드시 피부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 고통족 성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에서 사용해야 한다. 피부 깊숙이 이온화한 비타민 C를 침투시키는 피부과의 기미 치료나 미백 레이저 역시 선반을 입은 뒤 최소 2주 정도 후에 해야 할 일이다.



**아이오페 에이스비타민 C25**  
순수 비타민 C 성분을  
무려 25% 함유한 고강도 미백  
겸 안티에이징 앰플. 23g,  
7만원.



**설화수 자정미백  
에센스**  
백삼에서 추출한  
미백 성분이  
피부 톤을 맑고  
투명하게 가꿔주는  
브라이트닝 에센스.  
50ml, 21만원.



**헤라 화이트 프로그램  
캡슐 앰플**  
기미와 잡티를 완화하는  
데 탁월한 세럼과  
고함량 비타민 C를 함유한  
미백 캡슐이 한 병에 들어  
있는 앰플 세트.  
7.7g×6개, 16만원.



## 만신창이 헤어를 위한 애프터 바캉스 솔루션

지금 바캉스가 필요한 건 휴가 내내 불볕더위에 시달린 모발일지 모른다. 모자라도 썼다면 그나마 다행. 최전방에서 무방비 상태로 직격탄을 맞은 두피는 화기로 가득 차 손백의 제 색을 잃고 울긋불긋해졌을 터. 빗자루처럼 버석거리는 모발은 또 어떤가. 자외선과 소금기 가득한 바닷물이나 소독제로 관리하는 수영장 물은 두피와 모발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을 것이다. 특별한 건 없다. 휴가지에서는 모발 전용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바다나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긴 뒤에는 최대한 빨리 깨끗한 물로 머리를 헹군다. 바캉스 후에는 얼굴의 피부와 마찬가지로 헤어 역시 쿨링과 진정, 그리고 충분한 수분과 영양 공급이 절실하다. 증상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 두피와 모발을 각각 따로 관리한다면 금상첨화!



**러 화운생 뷰티플에이징 헤어 오일 세럼**  
모발을 탄력 있고 부드럽게 개선해주는 끈적이지 않고 산뜻한 헤어 오일. 100ml, 2만5천원.



**러 명품 생발효인삼 샴푸**  
생 발효 인삼 성분이 두피와 모발에 필요한 영양을 듬뿍 공급해주는 두피 보양 샴푸. 400ml, 3만3천원.

**설화수 바다로션**  
백은향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탄력과 윤기를 더해주는 은은한 매화 향의 바다로션. 250ml, 6만원.



**일리온 콜라겐에센셜 크림 인 로션**  
풍부한 보습 성분이 피부를 탄탄하고 건강하게 가꿔주는 바다 안티에이징 로션. 350ml, 3만원.



**프리메라 망고 버터 컴포팅 바다로션**  
보습력이 뛰어난 망고 버터와 호호바 오일이 피부를 촉촉하게 보호해준다. 380ml, 3만2천원.



## 따갑고 껌질이 벗겨지는 바디 피부를 케어하라

찬란했던 여름휴가가 끝나고 훈장처럼 남은, 휴가지에서 입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수영복 자국. 특히 가슴, 어깨, 목처럼 평소에는 노출할 일이 별로 없지만 휴가지에서 직사광선을 그대로 쏘이는 부위는 자외선에 더욱 취약할 뿐 아니라 기미, 잡티가 쉽게 자리 잡는 명당 중의 명당. 선반 후유증으로 붉게 달아오르고 화끈거리며 따갑다가 가라앉으면서 마치 뱀의 허물처럼 벗겨지는 각질도 골칫거리다. 야외로 나가기 전, 수영복의 경계 부분까지 꼼꼼하게 자외

선 차단제를 바르고, 야외 수영장이나 바닷가에 다녀왔을 때에는 곧바로 깨끗한 물로 씻은 뒤 차가운 물수건이나 진정 제품으로 피부 온도를 즉각 낮춰야 한다. 진득한 모이스처라이저를 듬뿍 발라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선반은 일반적으로 3~4일이면 저절로 가라앉으나, 등이나 어깨에 물집이 생긴 경우 자칫 터져 세균 감염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소염제를 복용하거나 병원을 찾아가 치료하는 것이 좋다. **LD**

MODEL: CHOI ARA, MAKEUP: JAMIE YOON, JANE PARK, DOYO KIM (AMORE PACIFIC LUXURY MAKEUP TEAM)  
HAIR: LEE HYE YOUNG, STYLING: PARK MI KYUNG, ASSISTANT: KIM SEUL KI (CONTENT ME)



# 원샷원킬

높아져만가는 불쾌지수를 단숨에 낮춰줄 스마트한 아이템을 소개한다.

가볍지만, 그 효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올마이티 스킨케어**.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雪花秀

Sulwhasoo

FIRST CARE  
ACTIVATING PERFECTING SERUM

윤조에센스 퍼펙팅

“계절을 떠나 1년 3백65일  
단 하나의 화장품만 발라야  
한다면 당연히 설화수 윤조에센스  
퍼펙팅을 선택할 것이다.”

-<마리끌레르> 뷰티 디렉터 윤희진

설화수 윤조에센스 퍼펙팅 90ml, 13만원/120ml,  
16만원(대용량 리미티드).

#국민에센스  
#하이테크바이오기술  
#스킨케어필수템

## 설화수 윤조에센스 퍼펙팅

무덥고 끈끈한 여름엔 스킨케어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기능을 겸비해 하나만 발라도 피부 상태를

효과적으로 개선해주는 제품 한두 가지만 선별해 스킨케어 단계를 줄이는 것. 설화수 윤조에센스 퍼펙팅은 피부를 보호하고 자생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안티에이징 효능까지 갖춰 여름에도 유용한 에센스다.



“제안과 샤워를 자주 하는  
여름엔 성분이 순하고  
가격도 적당한 프리메라 제품에  
더욱 애정이 간다.”

-<마리끌레르> 뷰티 에디터 김보나

프리메라 미라클 씨드 에센스 150ml, 4만8천원.

#연꽃발아수  
#수분미백주름개선  
#5-FREE

primera

Essence  
Miracle Seed

Lotus Seed Extract

Miracle Seed Essence:

Miraculous seed essence containing all  
the energy generated upon germination,  
creating radiant, glowing skin • Key In-  
gredients 1 Lotus Seed (Nelumbo nu-  
cifera)

93.1%  
LOTUS SEED  
EXTRACT

## 프리메라 미라클 씨드 에센스

효능은 물론 성분까지 꼼꼼히 확인해 순한 제품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면 프리메라 미라클 씨드 에센스를

여름철 화장대에 구비하지 않았을까? 연꽃발아수를 가득 담아 피부의 결과 톤, 투명도를 개선하는 기능이 탁월한 것은 물론 파라벤,

동물성 원료, 광물성 오일, 합성색소, 인공 향을 사용하지 않은 순한 성분의 제품이다.



“촉촉하고 산뜻한 제형 안에 담긴  
작은 캡슐이 얼굴에 닿는 순간  
터지며, 안티에이징 파워를 피부 속  
깊숙이 전달한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최향진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50ml, 20만원.

#진세노믹스™  
#인삼에너지  
#3중마이크로타겟팅

雪花露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ANTI-AGE RIGÉNÉRANT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여름철 높은 기온과 습도에 지친 피부는 탄력을 잃고 축 늘어지기 십상이다. 안티에이징 크림이 무겁고 끈끈하게 느껴진다면  
고농축 안티에이징 성분을 함유한 초강력 세럼 하나만 바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는 강인한 인삼의 에너지를  
가득 담은 산뜻한 제형이라 여름철 안티에이징 에센스로도 그만이다.



“화장수에 듬뿍 문혀 팩으로  
활용하면 별다른 스킨케어  
없이도 전문 스파에서 관리받은  
듯 피부가 투명하고 촉촉해진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아영

아모레퍼시픽 빈티지 싱글 엑스트랙트 에센스  
120ml, 17만원

#진정케어  
#맑고투명한피부  
#100일발효숙성차

아모레퍼시픽 빈티지 싱글 엑스트랙트 에센스

최신 화장품 트렌드는 단 하나의 유효 성분만을 풍부하게 담은 단일 성분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빈티지 싱글 엑스트랙트 에센스는  
이 트렌드의 선봉에 선 제품으로 인위적 효소 없이 자연이 완성한 발효차 추출물만을 오롯이 담았다. 자외선 등 유해 환경에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건강한 자연에너지를 가득 불어넣고 싶다면 아모레퍼시픽 빈티지 싱글 엑스트랙트 에센스에 올인할 것



“감각적인 텍스처부터  
환상적인 향기까지 일품.  
피부뿐 아니라 경직되었던  
마음까지 힐링되는 기분어  
니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김화진

아모레퍼시픽 보태니컬 수딩 토너 200ml, 9만원  
아모레퍼시픽 보태니컬 하이드레이팅 플루이드 160ml, 8만원

#럭셔리스킨컴포팅  
#왕대나무수액  
#보태니컬파워

AMOREPACIFIC

AMOREPACIFIC

**아모레퍼시픽 보태니컬 수딩 토너 & 하이드레이팅 플루이드**

피지 분비가 왕성한 여름에는 토너와 로션만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피부에 필요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고 피로와 자극은 완화하며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스킨케어의 기본을 제대로 수행하는 제품이어야 이 2 스텝 스킨케어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 보태니컬  
수딩 토너와 하이드레이팅 플루이드는 기본기를 확실히 갖춘 훌륭한 제품이다.



“어름엔 헤라 셀 에센스와  
수분 크림으로 스킨케어를  
간단히 하는 편이다.  
이 두 가지만으로 피부를 완벽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프리랜스 에디터 안새롬

셀 에센스 바이옴 플러스™, 150ml, 6만5천원(리필 150ml, 5만원)

#마이크로바이옴  
#바이옴플러스  
#건강한광채피부

**셀 에센스 바이옴 플러스™**

스킨 혹은 스킨 타입 퍼스트 에센스를 여러 번 덧발라 피부 속 깊이 수분과 영양을 침투시키면 이후 스킨케어 단계를 간소하게 해도  
피부 상태가 몰라보게 좋아져 7 스킨법이 유행하기도 했다. 헤라 셀 에센스는 7 스킨법의 필수템으로 각광받은 제품 중 하나. 업그레이드된 셀 에센스  
바이옴 플러스™는 생체수를 모사해 피부 친화적일 뿐 아니라 독자 유래 프로바이오틱스와 함께 프리바이오틱스를 함유해  
피부 장벽 강화는 물론 피부를 탄탄하게 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



## 한여름 밤의 꿈

신비로운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여름밤. 평상시보다

화려하고 과감한 메이크업에 도전해보자. 기존 아이섀도를 섞는 방법을

달리하면 뜨거운 여름밤을 위한 섹시한 메이크업이 가능하다.

photographer CHOI MOON HYUK

editor CHOI HYANG JIN

### GLAMOUROUS BURGUNDY

특별한 이벤트에 붉은 와인을 연상시키는 버건디만큼 잘 어울리는 컬러는 없다. 헤라 섀도 듀오 #10 얼루어링 중 밝은 플렉스 컬러를 눈두덩이에 넓게 바르고, #12 페피의 버건디 컬러인 크림슨을 아랫눈썹 라인에 길게 발라 포인트를 준다. 크림슨과 헤라 섀도 듀오 #9 플로렌스를 섞어 광대뼈 전체를 감싸듯 바르고, 입술에는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밤 #429 네이키드 아몬드를 꼭 채워 바른다.





### PURPLE PLAY

헤라 색도 듀오 #8 버블리 중 퍼플 컬러인 페리윙클을 눈꼬리와 눈머리, 아랫눈썹 라인의 중앙 부분에 바른 뒤 헤라 색도 듀오 #10 얼루어링의 골드 컬러인 플렉슨을 빈 곳, 즉 눈두덩이 중앙과 아랫눈썹 라인의 눈머리와 눈꼬리 부분에 터치해 신비로운 무드를 완성한다. 헤라 페이스 디자인 하이라이터로 광대뼈 위에 반짝이는 하이라이트를 더하고, 입술에는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볼륨 매트 #252 누드 크림을 바른다.







### BROWN SMOKEY

가장 무난하면서도 동시에 고풍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데는 브라운 색도만 한 것이 없다.  
 헤라 색도 듀오 #11 원섬 중 밝은 레드우드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에 바른 후 마호가니 컬러를 아이라인을 따라 바르고 그레데이션해 깊이 있는  
 눈매를 연출한다. 입술에는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밤 #488 핑미를 매치해 분위기를 더한다.

MODEL: RA JI WON, MAKEUP: JAMIE YOON, JANE PARK, DOYO KIM (AMORE PACIFIC LUXURY MAKEUP TEAM),  
 HAIR: LEE HYE YOUNG, STYLING: PARK MI KYUNG



### GOLDEN FEVER

반짝이는 골드 색도는 어떤 강렬한 액세서리 못지않게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헤라 색도 듀오 #10 얼루어링을 이용해  
 전반적으로 골드 무드를 연출하고, #3 인튜이티브 중 브라운 컬러인 엄버를 눈꼬리와 아랫눈썹 라인 눈꼬리에 발라 연결해준다.  
 입술에는 헤라 루즈 홀릭 익셉셔널 #248 모즈 코랄을 바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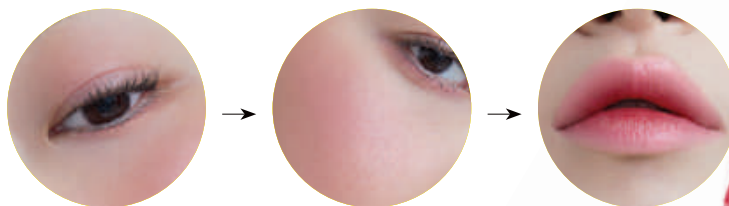
## 립스틱 멀티플레이

한 가지 립스틱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다양한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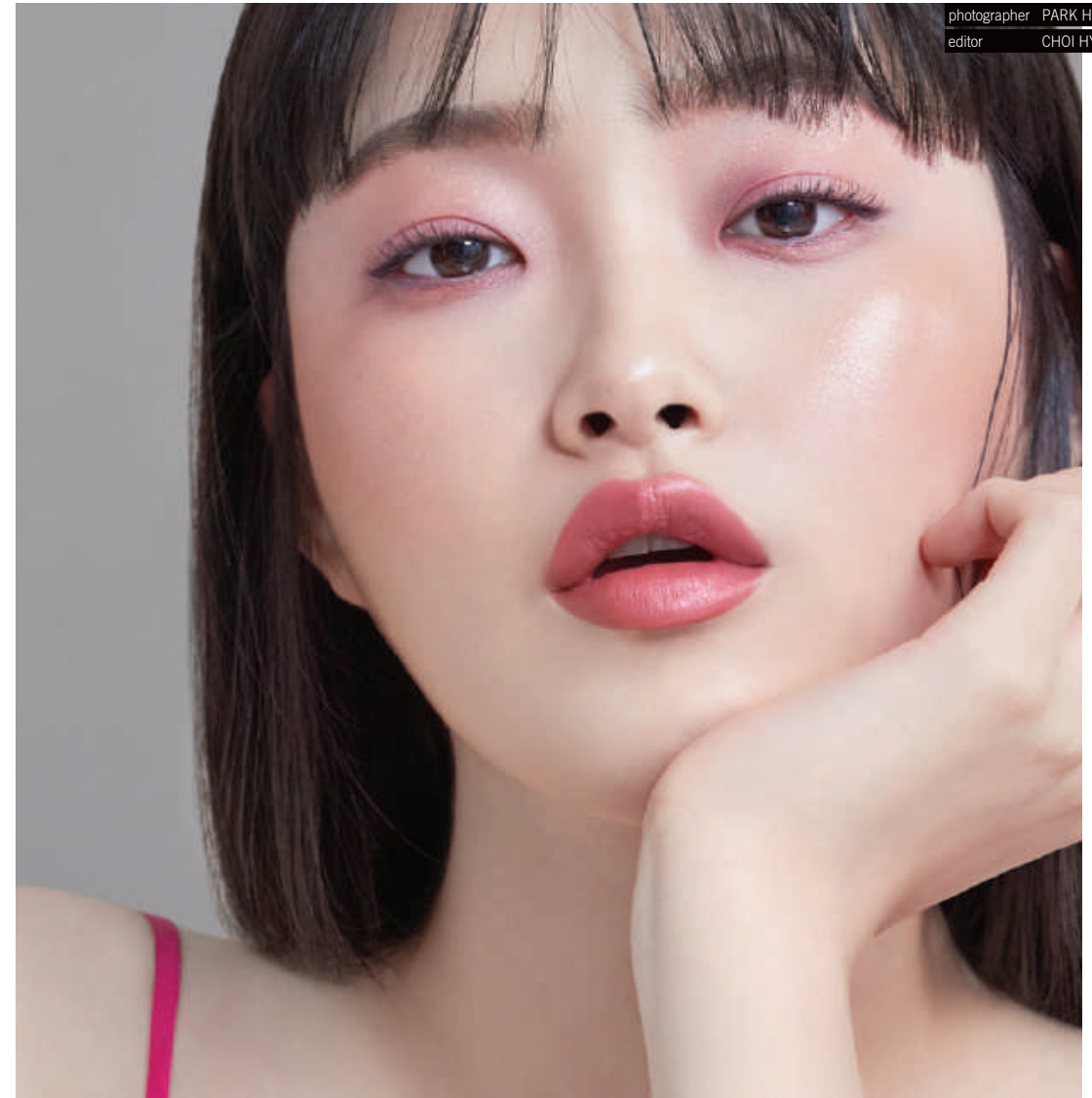
헤라 루즈 홀릭 익셉셔널 두 컬러로 완성한 네 가지 메이크업.

### LOOK 1. DRESSY ROSE – SMUDGED LIP

립스틱을 손가락에 문혀 입술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톡톡 두드리며 물들이듯 퍼 발라보자.  
소프트하고 여성스러운 룩을 연출할 수 있다.



**EYES** 헤라 색도 듀오 #8 버블리 중 핑크 컬러인 로즈 퀴츠를 동공 위와 아래에 바르고 부드럽게 그레이션한다. **CHEEK** 헤라 페이스 디자인 블러셔 #1 이터널 핑크를 볼 중앙부터 광대뼈까지 넓게 퍼 발라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LIPS** 헤라 루즈 홀릭 익셉셔널 #116 드레시 로즈를 입술 안쪽에 바른 뒤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 가장자리까지 물들인다.



photographer PARK HYUN JIN  
editor CHOI HYANG JIN

### LOOK 2. DRESSY ROSE – FULL LIP

입술이 얇은 사람이라면 립스틱을 입술에 딱 채워 바르는 풀 립 메이크업을 추천한다.  
입술이 도통해 보일 뿐 아니라 선명하고 경쾌한 인상을 줄 수 있다.



**EYES** 헤라 색도 듀오 #8 버블리 중 퍼플 컬러인 페리윙클을 눈 앞쪽에 터치해 그레이션한다. 아랫눈썹 라인도 같은 방법으로 그린다. **CHEEK** 헤라 색도 듀오 #9 플로렌스를 잘 섞어 블러셔로 사용한 뒤, 밝은 컬러인 앨러베스터를 하이라이터로 활용해 얼굴에 입체감을 더한다. **LIPS** 헤라 루즈 홀릭 익셉셔널 #116 드레시 로즈를 립 브러시를 이용해 본인의 입술보다 0.5mm 정도 넓게 라인을 그린 뒤 라인 안을 딱 채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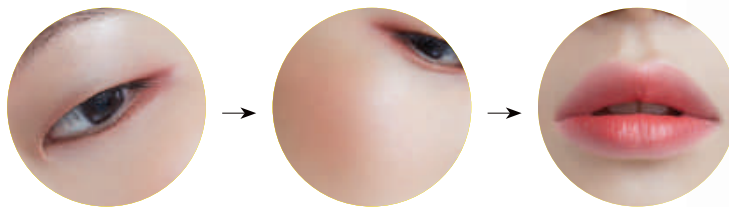
헤라 루즈 홀릭 익셉셔널.  
#116 드레시 로즈, 3g, 3만8천원.  
선명한 컬러와 부드러운  
텍스처를 지녀 한번만 발라도  
완벽한 밀착력과 발색을  
구현하는 립스틱. 영양이 풍부해  
입술이 건조해지지 않으며,  
그레이션 립부터 풀 립까지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드레시  
로즈는 톤이 다운된 진한 핑크  
컬러로 피부 톤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잘 어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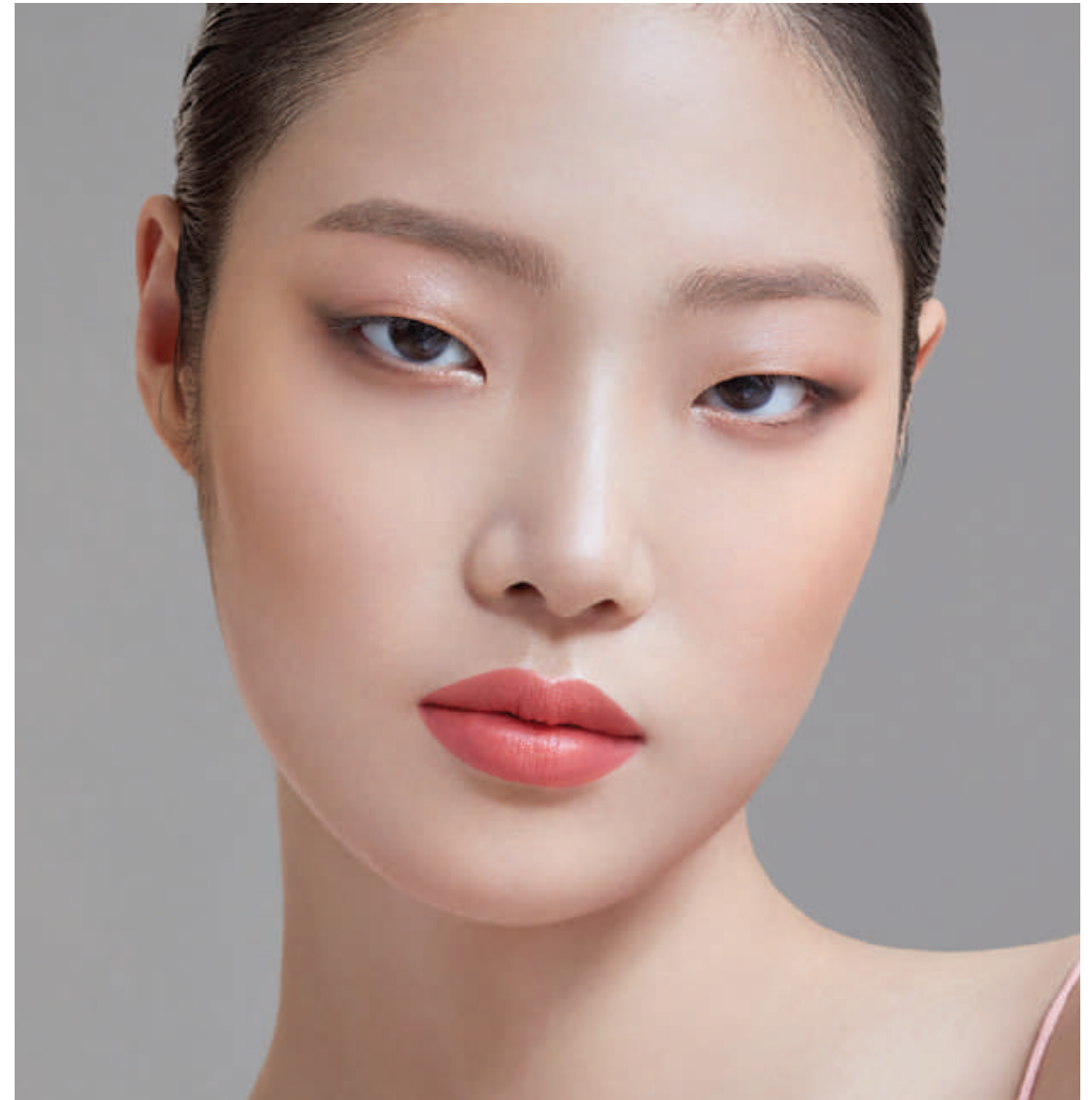


### LOOK 3. MODS CORAL – SMUDGED LIP

피부가 노란 기가 많은 월톤이거나 이지적인 분위기를 내고 싶다면 #248 모즈 코랄 컬러를 선택할 것. 그레데이션 립을 연출하면 한층 더 성숙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다.



**EYES** 헤라 색도 듀오 #4 피키 중 선다운 컬러를 아랫눈썹 라인 끝부분에 발라 립 컬러와 톤온톤으로 연출한다. **CHEEK** 헤라 색도 듀오 #4 피키 중 밝은 색상인 캔터루프를 볼 앞부분을 감싸듯 발라 생기 있는 오렌지 빛 뺨을 완성한다. **LIPS** 헤라 루즈 홀릭 익셉셔널 #248 모즈 코랄을 입술 안쪽에 충분히 바른 뒤 깨끗한 립 브러시로 가장자리로 펼쳐주면서 그레데이션한다.



### LOOK 4. MODS CORAL – FULL LIP

딥한 코랄 컬러 립스틱은 하나만 발라도 피부 톤이 정돈되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 흘꺼풀 눈이라면 세미스모키로 눈가에 포인트를 줘볼 것. 한층 정갈한 이미지가 완성된다.



**EYES** 헤라 색도 듀오 #5 클래식스를 아이라인을 따라 길게 빼듯 바른 뒤 #3 인튜이티브 중 다크 브라운 컬러인 엄버를 눈꼬리에 덧발라 시크한 눈매를 연출한다. **CHEEK** 헤라 디자인 브론저를 얼굴 윤곽선을 따라 바르고, 광대뼈 아랫부분에 가볍게 터치해 얼굴의 윤곽을 또렷하게 한다. **LIPS** 헤라 루즈 홀릭 익셉셔널 #248 모즈 코랄을 직접 입술 라인을 따라 발라 립 라인을 선명하게 그린 뒤 라인 안쪽을 메운다.

PHOTOGRAPHY: CHOISEUNG HYUK(제웅), MODEL: KIM ROSA, SHIN HYE YOUNG, MAKEUP: JAMIE YOON, VIVI IAHN, DONG HYUN KIM (AMORE PACIFIC LUXURY MAKEUP TEAM), HAIR: PARK CHANG DAE, STYLING: PARK MI KYUNG

헤라 루즈 홀릭 익셉셔널, #248 모즈 코랄, 3g, 3만8천원. 브라운이 한 방울 섞인 듯 톤이 다우된 코랄 컬러로 어떤 메이크업이나 무난하게 잘 어울려 데일리 립스틱으로 알맞다.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연하게 바르면 생기 있는 생일 같은 메이크업에 잘 어울리며, 아이라인과 매칭하면 서울리스타의 도회적인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 어떤 자외선도 철저히 차단한다 헤라 선메이트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자외선 차단제를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하수. 옷차림이 TPO에 따라 달라야 하듯 자외선 차단제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헤라 선메이트 사출사만 있으면 그 어떤 자외선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다.

## 헤라 선메이트

①

### SPF50+/PA+++ 이상의 강력한 자외선 차단 기능

헤라 선메이트 라인인 모든 제품이 SPF50+/PA+++ 이상의 높은 자외선 차단 지수를 자랑한다. 당연히 생활 자외선은 물론 강력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능력이 탁월하다.

②

### TPO별 맞춤형 테크놀로지

선메이트 엑셀런스 루센트 피그먼트™를 함유해 얼굴을 화사하게 밝혀주는 톤 업 베이스 역할을 하고, 선메이트 프로텍터는 C.U.T. 시스템(C.U.T. System)을 적용해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노화 징후까지 완화해준다. 선메이트 스틱은 피지 콘트를 파우더를 배합해 하루 종일 피부를 보송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선메이트 레포츠는 스웨트 프루프 필름™ 테크놀로지를 사용해 물과 땀에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고안했다. 이 자외선 차단제 4종은 모두 용도에 딱 맞는 아모레퍼시픽의 독자적인 기술로 만들어 각각 상황에 맞게 완벽한 자외선 차단을 보장한다.

③

### 답답하지 않은 편안한 사용감

많은 사람이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꺼리는 이유는 특유의 번들거리거나 끈적이고 답답한 느낌 때문일 터. 하지만 헤라 선메이트 라인인 모든 제품은 피부에 잘 밀착되는 부드러운 제형으로 메이크업이 밀리거나 이물감이 느껴지지 않아 편안하다.

## 겨울 대비 여름 UVB 조사량

6~7배

## 여름철 적정 자외선 노출 시간

26~41분

헤라 선메이트  
엑셀런스 SPF50+/  
PA++++, 로지 글로우  
화사하고 광채가 나는  
피부로 연출해주는  
루센트 피그먼트™가  
들어 있어 메이크업  
베이스를 별도로 바를  
필요가 없다.  
40ml, 4만5천원.

헤라 선메이트 스틱  
SPF50+/PA++++  
휴대하며 닳바르기  
좋은 스틱형  
자외선 차단제.  
피지 흡수 파우더가  
들어 있고 모공을  
커버해 오랜 시간  
얼굴을 보송하고  
매끄럽게 유지할 수  
있다. 20g, 3만5천원.

“헤라 선메이트 스틱은 여름철 파우치 속 필수템. 장시간 운전을 하거나 야외 활동을 할 때 간편하게 덧바를 수 있어 애용한다.”

-<마리끌레르> 뷰티 디렉터 윤취진

“마스크를 늘 껴야 하는 요즘은 스킨케어 후 헤라 선메이트 엑셀런스만 바른다. 파운데이션을 바르지 않아도 화장한 듯 피부 톤이 환해지기 때문이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김희진

“얼굴에 땀이 많이 나는 편이라 평상시에도 워터프루프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한다. 헤라 선메이트 레포츠는 답답하지 않아 좋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이성진

헤라 선메이트  
프로텍터 SPF50+/  
PA+++  
자외선으로  
인한 노화의  
징후를 완화하고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도시형  
자외선 차단제.  
50ml, 3만8천원.

헤라 선메이트 레포츠  
프로 워터프루프  
SPF50+/PA++++  
물과 땀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스웨트 프루프 필름™  
테크놀로지를  
적용해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할 때 적합하다.  
70ml, 3만6천원.





# 여름철 지친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설화수 수분영양크림

여름에도 피부는 건조하다. 뜨거운 별과 에어컨 바람, 실내와 바깥의 큰 온도 차 때문이다.

이럴 땐 피부 속 가득 수분과 영양을 채워주는 기능이 탁월한 크림이 필요하다.

설화수 수분영양크림  
피부 속 깊숙이 풍부한  
수분과 영양을  
전달하는 사계절용  
수분 영양 크림.  
50ml, 7만원.



피부가 촉촉해진 느낌

98%

속당김이 해소된 느낌

94%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는 느낌

92%

\* 시험 대상: 40~59세 방판  
설화수 경험 여성 50명  
시험 기간: 2019년 8월  
19일~9월 4일  
시험 기관: (주)리모션

설화수  
수분영양크림

①

영양 탄력을 구현하는 자음영양단™

피부의 탄력 지지체를 강화하는 구기자와 흑두, 풍부한 영양을 공급해 탄탄하게 만드는 갈근, 영양을 보충하는 꿀, 이 네 가지 약재로 이루어진 자음영양단™을 함유해 피부가 습한 더위를 이겨낼 힘을 길러준다.

②

유·수분 균형을 맞춰주는 포고영, 해송자유 추출물

자음영양단™ 외에도 피부 수분 공급과 진정에 효과적인 포고영(민들레)과 영양을 공급하고 윤기를 살려 주름을 완화하고 피부결을 개선해주는 해송자유(잣 오일)가 들어 있어 메마른 피부에 풍부한 수분과 영양을 전달한다.

③

피부가 땅기는 증상을 완화해주는 촉촉한 사용감

부드러운 젤 텍스처가 매끄럽게 발리며 흡수와 동시에 보습막을 형성해 쉽게 메마르지 않는 촉촉한 피부로 개선해준다.

“쫘득한 텍스처가 피부에 수분 영양 막을 씌워주는 느낌. 피부 속부터 차오르는 수분감이 느껴진다.”

-프린세스 에디터 안새롬

“파운데이션을 바르기 전에 이 크림을 얇게 바르면 피부를 정돈하고 고급스러운 윤기를 더해준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영

“젤 제형이지만 가볍지 않아 심한 건성 피부에도 좋다. 끈적이지 않고 빠르게 흡수되어 산뜻하다.”

-<마리끌레르> 뷰티 에디터 김상은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 맑고 건강한 피부의 시작 아모레퍼시픽 트리트먼트 엔자임 펠 클렌징 파우더

축 늘어진 모공과 블랙 헤드가 눈에 띄는 계절. 모공 속 노폐물과 묵은 각질을 말끔히 없애고,

땀과 피지에 엉겨 굳은 미세먼지까지 깨끗이 제거하는 순한 클렌저가 필요한 때다.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아모레퍼시픽  
트리트먼트 엔자임 펠  
클렌징 파우더  
녹차 유산균 유래  
효소가 모공 속  
노폐물과 묵은 각질을  
씻어내 맑고 건강한  
피부로 바꿔주는  
세안제. 50g, 6만원.

## 아모레퍼시픽 트리트먼트 엔자임 펠 클렌징 파우더

①

### 엔자임 파우더로 클렌징과 각질 제거를 동시에

엔자임, 즉 효소는 묵은 각질만 타겟하여 반응하는 특징을 지닌다. 효소의 이런 성질 덕분에 무작위로 각질을 벗겨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각질만을 부드럽게 케어할 수 있다.

②

### 녹차유산균 유래 효소로 더 확실한 각질 제거 효과

아모레퍼시픽 트리트먼트 엔자임 펠 클렌징 파우더에는 효소 중에서도 오랜 연구 끝에 찾아낸 녹차유산균 유래 효소가 담겨있다. 녹차유산균 유래 효소는 케라틴 분해 능력이 뛰어나 각질 제거에 더욱 효과적이며, 피부 노폐물을 부드럽게 제거해 피부를 더 맑고 투명하게 가꿔준다.

③

### 사용하기 편리한 특수 용기

특수한 구조의 용기에 담겨 있어 용기를 수직으로 기울이면 1회 사용에 알맞은 양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용기 캡과 내부 실리카가 파우더를 항상 보송보송하게 유지시켜준다.

피부가 건조하지 않고 산뜻한 느낌

97%

클렌징과 각질 케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제품

94%

맑고 건강한 피부 관리에 효과적인 제품

94%

시험 대상: 만 35~60대  
여성(평균 46세) 34명.  
시험 기간: 2018년 6월 1일  
~15일.  
시험 기관: 피엔케이  
피부임상연구센터(주)

“몇 통째 재구매한 클렌저.  
피부가 거칠 때 사용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매끈하고 보들보들한  
피부로 돌아와 있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최향진

“풍성한 거품으로 묵은 각질을  
자극 없이 제거해  
세안 후 피부결이 매끈해지고  
안색이 확연히 밝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이성진

“피부가 예민해 웬만한 각질  
제거제를 잘 못 쓰는데,  
이 제품은 안심할 수 있다.  
자극 없이 각질이 제거돼  
피부가 매끈해진다.”

-<마리끌레르> 뷰티 에디터 김보나



# 갱년기 여성 건강을 위하여 바이탈뷰티 자음보액

여러가지 신체적, 정신적 징후가 나타나는 갱년기에는 보다 섬세한 맞춤형 케어가 필요하다.

프리미엄 앰플 바이탈뷰티 자음보액은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바이탈뷰티 자음보액  
갱년기 여성의  
흐트러진 몸속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회화나무열매  
추출물과 홍삼이  
함유되어 생기와 활력을  
채우는 프리미엄  
여성 특화 앰플이다.  
25g×30앰플 15만원.



## 바이탈뷰티 2020 자음보액

①

### 갱년기 증상 케어를 위한 회화나무열매추출물과 홍삼 함유(주원료)

회화나무열매추출물은 갱년기 건강 개선이 확인되어 식약처로부터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원료로 갱년기의 불편 증상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홍삼이 함유되어 갱년기에 저하되기 쉬운 면역과 혈행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②

### 바이탈뷰티 여성건강연구팀에서 엄선한 전통식물추출물과 L-테아닌(부원료)

6가지 전통식물추출물(제주조릿대잎, 참마, 맥문동, 지황, 상삼자, 구기자)가 함유되어 있으며, 차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아미노산 성분인 L-테아닌이 부원료로 함유되어 있다.

③

### 사용자 편의까지 고려한 새로워진 포뮬러와 보틀

2020 자음보액은 회화나무열매추출물에 수용성 식이섬유를 더해 침전물이 생기는 현상을 완화했을 뿐 아니라 맛을 개선하고 보틀의 캡을 변경해 보다 편리하고 깔끔한 섭취가 가능해졌다.

식약청 인증

## 갱년기 지수(KI) 개선확인 원료

바이탈뷰티 여성건강연구팀 엄선실제

## 7가지 부원료함유

여성 갱년기 건강

## 1일 1앰플 케어

“지난 어버이날에 선물한 이후 어머니가 직접 구매해 복용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다.”

-뷰티 컨텐츠 디렉터 김희진

“건강의 기본인 면역력을 챙기면서 갱년기 증상 개선에 도움까지 주는 제품이라 일석이조다.”

-뷰티 컨텐츠 디렉터 최향진

“손자까지 보시느라 고생하는 어머니에게 선물했더니, 기력이 난다며 좋아하신다. 선물은 무조건 자음보액이다.”

-마리끌레르 뷰티 디렉터 윤취진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 집콕 아트를 실현하는 사람들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취미를 시도하는 언택트족이

늘어나며 '집콕 아트'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실을 엮고 짜는 위빙 아트부터 드로잉, 도자, 플랜테리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경로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알리는 사람들을 만났다.

photographer PARK HYUN GOO

editor AHN SAE ROM

작업을 시작한 계기가 있나요? 미국 패션 브랜드 어반 아웃피터스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브루클린에 있는 위빙 스튜디오 디자이너의 인터뷰를 보았어요. 그들의 작품은 한눈에 사로잡힐 만큼 예뻐더라고요. 이거다 싶었어요. 공방을 찾아다니며 기초를 배우고 회사도 그만뒀죠. 작품을 만들어 인스타그램 계정에 종종 올렸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뜨거웠어요. 직접 배워보고 싶다는 사람도 많았어요. 하나둘씩 집에 초대해 가르쳐주고 클래스도 운영하다 작업실을 열게 됐죠. 좋아하던 취미가 결국 지금의 저를 있게 했어요.

다양한 색감이 어우러진 작품이 많아요. 제가 영화광이에요. 색깔이 아름다운 영화에서 많은 영감을 받아요. 이타미 주조 감독의 영화나 장이머우 감독의 <홍등>, 뮤지컬 영화 <코러스 라인> 같은 작품이요. 영화를 보고 나면 그 영화의 전체적인 색감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런 색들을 조합해 작업할 때 응용하는 편이고요.

최근에는 터프팅 작업을 많이 했



**이상희**  
@blue\_hour\_ 패션 매거진 피쳐 에디터 출신의 위빙 테프스트리 아티스트. 취미로 시작한 일이 직업이 되어, 지금은 블루아워라는 공방을 운영 중이다.

어요. 터프팅을 시작한지는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실을 엮어서 짜는 위빙과 달리 터프팅은 쉽게 말하면 실을 소재에 박아 넣는 거예요. 벨기에에서 처음 터프팅 기법을 접하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며 작업의 전환점이 되기도 했고, 친구들과 함께 떠난 여행지에서 쌓은 추억 때문인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코로나19로 작품 활동에도 영향을 받고 있나요?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전시를 두 차례 진행했어요.

사람들이 전시를 즐기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고, 클래스를 진행하는 횟수도 대폭 줄었죠. 하지만 저는 다른 방식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조금 더 긍정적으로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다음 작품을 구상하거나 시간을 못 내 미뤄뒀던 작업을 하는 식이죠.

점점 디지털화되고 있는 예술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작품을 소개할 때면 만드는 일련의 과정에 비해 소비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가끔은 초조하죠. 하지만 다양하고 즉각적인 피드백 같은 장점 또한 있어요. 오프라인 전시보다 SNS에 공유했을 때 많은 분이 제 작품을 보고, 생각하지 못한 피드백을 주기도 해 제 작품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김은지**  
@eunji.briller 동시대의 뉴스, 기술 문화와 관련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자 유물화를 만드는 미술가. 도자를 비롯해 여러 재료를 활용해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많은 재료 중 도자를 활용해 작업하는 이유가 있나요? 미대를 졸업하고 도예를 사사했어요. 대학 학부 때부터 도자 기술에 관심이 있어 배우고 싶었거든요. 사사하면서 그릇처럼 쓰임새가 있는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건 영재미가 없더라고요. 도자는 '씩지 않는' 어마어마한 물성을 가진 재료인데, 도자로 그릇을 만들려니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자의 가장 큰 특성인 '영원성'에 집중해 설치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이런 내용으로 도자를 처음 접하거나 깊이 탐구하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워크숍 '도자로 다른 것 만들기'도 진행하고 있어요.

주로 어떤 작품을 만들어요? 제 작품은 대부분 뉴스에서 영감을 받아요. 시대상을 반영하다 보니 다소 무거운 주제도 포함하죠. 지난해엔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미래 유물을 만들었고, 올해는 n번방,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작업했어요. 도자로 데이터를 박제해 유물을 만드는 작업으로 '최신 유물'이라고 불렀습니다.

2020년은 애프터 코로나 시대라고 해요. 코로나19가 개인적인 작품 활동이나 영감에도 영향을 미쳤나요? 올해는 온라인 전시나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거나 택배를 활용하는 등 비대면으로 대체해 진행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비대면 방식인 영상보다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고 싶어 오디오 가이드를 활용해 워크숍 작업을 했죠.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인지는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알 수 있을 테지만 애프터 코로나 시대는 작가들에게 더욱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야 하는지에 관해서요.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한 상징적인 물건이랄 수 있는 토템 만드는 워크숍을 열었어요. 서울문화재단 서서울예술교육센터에서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한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오디오 가이드, 웹사이트, SNS 등을 활용해 진행했고, 워크숍 관련 자료는 상자에 포장해 참가자가 있는 곳으로 배송했죠. 참가 신청은 마감했지만, 참가자들이 만든 토템은 인스타그램(@2020candycarbon)에서 볼 수 있어요.

본인의 작품을 더욱 흥미롭게 즐기는 비결이 있다면? 내가 만드는 '최신 유물'이 과연 진정한 유물이 될 수 있을까? 1백 년 뒤, 2백 년 뒤에 남겨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중심에 두고 작업을 합니다. 관객이 이런 관점을 공유하며 함께 바라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집에서 하는 취미 활동이 급격하게 늘었고, 디지털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집콕 아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집에서 누릴 수 있는 집콕 아트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최근에는 미술관, 박물관 등이 휴관하며 온라인 전시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죠. 직접 가서 보면 좋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 온라인 전시로 작품과 부대 행사를 관람하는 방법을 추천해요. 대안 공간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행사도 많습니니다. 대안 공간은 미술관에 비해 접근하기 쉽진 않죠. 그래도 요즘은 관객들이 미술 공간에 대해 많이 알고더라고요. 각 공간의 SNS를 팔로 하고 온라인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재밌는 취미라고 생각해요.



**플라워 작업을 시작한 계기가 있나요?** 계기라면 패션 관련 일을 하면서 접한 헤어피스에요. 머리카락 따위를 생화로 장식한 제니퍼 베어의 헤어피스를 보고 '아, 꽃이 패션과 이렇게 만날 수 있구나.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막연하게 꽃도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죠.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일본 나고야에 가서 한 달 정도 무작정 살았어요. 여행도 하면서 꼭 배우고 싶은 스승을 만났고 그분 밑에서 많은 작업을 했어요. 앉아서 꽃을 꽂는 일뿐 아니라 다양한 공간 스타일링도 접했죠. 그때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일본 정통 꽃꽂이인 '이케바나' 스타일을 결합한 작업을 많이 해요.

**코로나19가 개인적인 작품 활동이나 영감에도 영향을 미쳤나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많은 사람이 꽃을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사치품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생각이 들 테지만, 한편으로 꽃 사진을 보며 힐링을 하는 사람도 많죠. 집에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 꽃과 풀 등 식물을 집에 들고, 식물로 집을 꾸미는 플랜테리어를 궁금해하고 배우길 원하는 사람도 많아요.

**디지털로 모든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세상에요. 실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작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저도 고민이 많아요. 온라인으로 재료 구입부터 클래스 수강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저는 제 작품이 디지털화되는데 거부감은 없어요. 오히려 많은 공감을 얻고 소통한다면 작업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 색다른 작업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 일환으로 림킴이라는 아티스트의 라이브 영상 플랜



사실 무척 힘들었어요. 원래 수목원의 정리된 공간에 나무와 들꽃, 잔디를 무성하게 채웠어요. 일정한 형태가 없는 과목들도 배치하고요. 림킴의 목소리와 어우러지는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죠.

**'꽃알못'들을 위해 집에서 꽃을 즐기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면요?** 꽃을 한두 송이 사서 화병에 꽂아보세요. 그 꽃을 집에서 본인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곳, 예를 들어 잠자리 옆이나 화장대, 식탁 같은 곳에 두는 거예요. 꽃 한 송이가 만드는 분위기에 먼저 익숙해지고 편해지면 그다음은 쉬워요. 본인의 스타일을 찾으면 되니까요. 요즘에는 온라인 클래스나 유튜브 등 여러 매체를 통해 꽃과 관련한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 참고하면 더 좋고요.



**오은아**  
@ohanaya\_official  
패션 홍보 대행사와 마케팅 회사를 다니다가 취미로 접한 꽃에 마음을 뺏겨 '오하나야'의 플로리스트로 변신해 6년째 꽃을 주제로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다.

테리어 작업을 진행했죠.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작업이었죠. 분위기도 색다르고요. 꽃과 나무로 엄청나게 넓은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작업이었어요. 림킴의 음악과 제 작품의 분위기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화성의 한 수목원 온실에서 진행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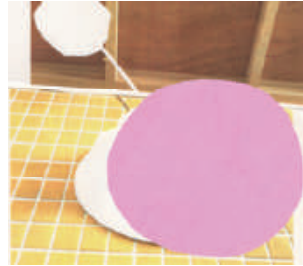
MAKEUP: KANG SEOK GYUN, HAIR: AHN MI YEON, KOOHYUN MI, STYLING: AHN SAE ROM

**작품은 어떤 식으로 만드나요?** 작업의 영감을 받는 곳은 일상이에요. 눈으로 직접 본 것, 들은 것, 만져본 것 등 오감으로 느낀 것에 대한 감상을 표현하는 과정은 제 작업의 중요한 첫 단계예요. 그래서 가까운 주변에서 항상 접하는 것들에 관심이 많죠. 매일 거의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고 있지만 전체를 놓고 인생을 한 편의 영화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익숙한 일상의 장면이 다르게 보일 때를 포착하고 그 스틸 컷들을 모아두고 있어요.

**개인 작업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평소에 포착한 인상적인 장면을 사진으로 기록해두었다가 그림이나 디지털 페인팅, 콜라주 기법으로 표현해요. 이외에 제가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던 다양한 클래식 패턴을 재해석하고 이것들을 활용해 콜라주 하는 것도 주요 작업 중 하나예요.

**캔버스뿐 아니라 패브릭, 사진, 세라믹 등 다양한 텍스처 위에 작업하는데 이런 방식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나요?** 디자인을 전공했고 패션 회사에 다닌 경력도 있는 터라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것을 만드는 일에 친숙하고 즐거움을 느껴요. 그래서 다양한 재료와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해요. 작품 자체로 가치 있는 작업과 이런 실용적인 상품으로 제작 가능한 작업을 병행하고 싶은 마음도 크고요.

**사키만의 컬러 팔레트가 궁금해요.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색을 쓸 때 중점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은 뭔가요?** 컬러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 편인데, 전에는 색을 사용하는 저만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크게 보면 어두운 계열은 거의 쓰지 않고, 개인적으로나 작업할 때 선택하는 컬러는 제 머릿속 팔레트에 속한 것들이에요. 패션이나 뷰티 브랜드에서 한 시즌의 무드 보드를 만들 때 컬러 맵 같은



**권은진**  
@saki\_svn  
'Saki'라는 이름으로 드로잉과 디자인 작업을 하는 아티스트. 일상에서 발견하는 따뜻하고 알록달록한 색깔과 속속 그린 듯한 드로잉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작품을 주로 만든다. 개인 작업과 더불어 다양한 브랜드의 상업적인 비주얼을 만드는 일도 하고 있다.



걸 만들잖아요. 시즌 컬렉션을 관통하는 키 컬러를 선택하고, 이와 어울리는 컬러 칩들을 찾아내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늘 머릿속으로 컬러 팔레트를 만들고 틈틈이 업데이트해요. 늘 가장 예쁘고 좋은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고요. 영향을 받은 대상을 꼽으려면 영화죠. 컬러 영화가 대중화된 직후인 1950~60년대의 프랑스 영화와 일본 영화를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보고 무척 좋아했어요. 누벨바그 감독들의 그 시대를 보여주는 미장센이나 색감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지금처럼 아무도 바로 다음 달 상황조차 예측할 수 없는 때에는 이전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일상이나 작품에 대한 생각이 변한 부분이 있나요?** 집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도 외출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올해는 특히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었어요. 여행을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은 다녀는데 지금은 해외는 고사하고 국내 여행도 조심스러운 시점이라 일상에 투자하는 시간과 돈이 이전보다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집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나 먹거리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재밌는 일들을 찾고 있죠. 제 작품의 영감이나 주제는 항상 제 일상에 관한 것이라 코로나19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제 작품을 감상하는 분들도 개인적인 삶에 대한 고민이 전보다 더 많아지는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공감대를 작품으로 표현해보고 싶어요. **10**





## 무더운 날의 골프

뜨거운 태양 아래 드넓은 필드에서 즐기는 스포츠 골프. 자외선에 맞서

피부를 지켜줄 선크림부터 땀과 유분에 지워지지 않는 메이크업을 위한 제품까지  
골프 마니아를 위한 서머 골프 뷰티 에센셜 아이템.

photographer CHOI SEUNG HYUK(제품)

editor AHN SAE ROM

## item.1

for 지워지지 않는 메이크업을 위한 수분 충전 제품

야외에서 즐기는 골프를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뷰티 제품은 수분 충전을 위한 에센스와 앰플. 메이크업 전 수분 앰플에 적신 화장솜을 얼굴에 3~5분간 붙여 피부 속까지 촉촉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필수다. 띄약별 아래 몇 시간 동안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분 층을 겹겹이 쌓아 올린다는 느낌으로 앰플과 퍼스트 에센스,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파운데이션을 얇게 바르는 것이 핵심. 베이

스 메이크업을 최대한 얇게 하고 싶다면 톤 업 효과가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눈 밑이나 입 주변 등 칙칙한 곳에만 세미 매트 파운데이션을 발라 피부 톤을 정리한다.

헤라셀 에센스  
바이옴 플러스™  
세안 후 처음 사용하는 퍼스트  
에센스. 바이옴 플러스™  
기술로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풍부하게 채워준다.  
150ml 6만5천원 / 75ml  
3만3천원.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컴플렉스 쿠션 컴팩트 SPF50+/PA+++  
강력한 자외선 차단 뿐만 아니라 화사한 다이아 광채를 선사하는  
안티에이징 쿠션. 15gx2, 12만원.

헤라 클리어 리퀴드  
아이라이너 #79 블랙  
뜨거운 눈매를 위한  
리퀴드 아이라이너.  
2g, 2만8천원.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  
SPF15/PA+ 21N1호  
바닐라 24시간 동안  
지워지는 일 없이 보송한  
베이스 메이크업을  
유지해준다.  
35ml, 6만원.

설화수 상백크림. 2호  
밀키 톤 업 자외선을 비롯한  
유해 환경 자극에 맞서  
피부를 보호하는 저자극  
브라이트닝 선크림. 가볍고  
산뜻한 핑크빛 텍스처로  
톤 업 효과를 볼 수 있다.  
50ml, 8만5천원.

리리코스 마린 하이드로  
앰플 EX 오리지널 피부를  
촉촉하고 건강하게  
가꿔주는 에센스 앰플.  
5ml×12개, 11만원.

PHOTOGRAPHY: WWW.GETTYIMAGESKOREA.COM



## item.2

건강하게 그을 피부는 탐스럽지만 눈가의 기미와 얼굴 곳곳의 잡티나 다크 스팟은 맑은 피부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아웃도어 스포츠를 즐길 때는 다양한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기능을 갖춘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는 것이 현명하다. 자외선의 영향으로 무너지는 콜라겐 층을 보호하는 로션 타입 자외선 차단제부터 광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선크림, 땀이나 물에 베이스 메이크업이 지워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워터프루프 선블록 등 다양한 기능으로 무장한 자외선 차단제가 출시돼 있다. 얼굴뿐 아니라 목과 팔다리 등에도 꼼꼼하게 덧발라 광 노화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자.

선 차단제를 고르는 것이 현명하다. 자외선의 영향으로 무너지는 콜라겐 층을 보호하는 로션 타입 자외선 차단제부터 광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선크림, 땀이나 물에 베이스 메이크업이 지워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워터프루프 선블록 등 다양한 기능으로 무장한 자외선 차단제가 출시돼 있다. 얼굴뿐 아니라 목과 팔다리 등에도 꼼꼼하게 덧발라 광 노화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자.

워터프루프 선블록 SPF50+/PA+++ 부드러운 발리는 가벼운 제형의 자외선과 물, 땀에 강한 아웃도어용 선크림. 70ml, 3만2천원.

for 뜨거운 햇빛을 차단해주는 아웃도어 자외선 차단제



헤라 선메이트 레포츠 프로 워터프루프 SPF50+/PA++++ 강력한 자외선 차단 효과와 땀이나 물에 강한 워터프루프 기능을 갖췄다. 70ml, 3만6천원.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저브 데이 디펜스 SPF50+/PA++++ 자외선의 영향으로 무너지는 코어 콜라겐을 보호해주는 안티에이징 선크림. 30ml, 17만원.

아이오페 UV 쉴드 스킨 에너지 선 SPF50+/PA++++ 자외선과 광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선크림. 45ml, 3만8천원.

프리메라 스킨 릴리프 워터프루프 선블록 SPF50+/PA+++ 부드럽게 발리는 가벼운 제형의 자외선과 물, 땀에 강한 아웃도어용 선크림. 70ml, 3만2천원.

## item.3

for 지워지지 않는 메이크업을 위한 수분 충전 제품

베이스 메이크업을 아무리 꼼꼼하게 해도 여름철 야외에서는 흐르는 땀과 끊임없이 솟는 유분에 메이크업이 지워지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바삭 마른 피부에 수분과 안티에이징 오일 성분을

공급하는 미스트부터 눈 밑에 번진 아이 메이크업과 땀을 산뜻하게 지울 수 있는 클렌징 티슈, 이마와 콧등 등 유분이 많이 분비되는 T존을 보송하게 유지해주는 프라이밍 파우더 등 메이크업 수정을

위해 파우치에 간편하게 넣어 다닐 수 있는 아이템을 준비할 것. 거울을 보지 않고 바를 수 있는 밤타입 립스틱은 입술뿐 아니라 양 볼에 손가락으로 톡톡 짚어 퍼뜨려 블러셔로 활용해도 좋다. 1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밤 #279 무디 입술에 반짝이는 생기를 더해주는 밤타입 립스틱. 거울 없이도 쓱쓱 부드럽게 바를 수 있다. 3.5g, 3만5천원.

헤라 에어리블러 프라이밍 파우더 땀이나 유분에 번지기 쉬운 베이스 메이크업을 보송하게 잡아주는 파우더 타입 프라이머. 8.5g, 6만원.

프리메라 모이스처 클렌징 티슈 메이크업을 간편하게 지울 수 있는 클렌징 티슈. 닦아낸 뒤에도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된다. 60매, 2만원.

헤라 선메이트 스틱 SPF50+/PA++++ 메이크업을 수정할 때도 밀리지 않고 보송하게 발리는 프라이머 선 스틱. 20g, 3만5천원.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뉴얼 미스트 녹차 세포수와 미세 오일 입자가 빠르게 보습을 충전해주는 안티에이징 미스트. 200ml, 12만원.





# 해피 배스 타임!

하루종일 더위를 견디느라 지친 몸을 위한 향기로운 힐링이 필요한 때.

호텔 스파 못지않은 홈 스파를 즐길 수 있는 바디 제품 네 가지를 소개한다.

editor AHN SAE ROM

PHOTOGRAPHY: WWW.GETTYIMAGESKOREA.COM, CHOI SEUNG HYUK (제공)

## 샤워 후 바르면 침대에서도 향이 은은하게 퍼지길 원한다면

**프라도어 퍼스웨이드 바디오드 퍼퓸 05.** 100ml, 6만7천원.

샤워 후 바디 퍼퓸을 심장박동이 느껴지는 목이나 팔목, 데콜테에 뿌려 산뜻한 기분을 만끽해보자. 프라도어의 바디 오드 퍼퓸은 땀 등으로 인해 몸에서 나는 불쾌한 체취를 없애는 특화된 성분을 사용한 것은 물론, 니치 프라그랑스 국제향료협회의 인증을 받은 신개념 니치 데오 퍼퓸이다. 달콤하고 씩사름한 베르가모트와 만다린, 시간이 지날수록 은은하게 풍기는 히말라야산 시더우드와 바닐라의 포근한 향을 느낄 수 있다.



## 향수를 뿌린 듯 향기로운 샤워를 만끽하고 싶다면

**헤라 벨벳 나이트 퍼퓸드 샤워젤.** 270ml, 4만7천원.

자기 전 심신을 안정시키는 향초 아로마 테라피나 취향에 맞는 음악을 들으며 하는 기분 좋은 샤워로 하루의 스트레스를 푸는 홈 스파는 사시사철 반갑지만 여름엔 특히 향에 민감하기 쉽다. 헤라의 벨벳 나이트 퍼퓸드 샤워젤은 마치 향수처럼 톨, 미들, 베이스 노트의 다양한 향기가 어우러진 것이 특징. 은방울꽃과 사과, 베르가모트의 상쾌한 향으로 시작해 아이리스, 머스크, 바닐라 등 묵직하고 부드러운 잔향이 오랫동안 은은하게 퍼진다.

## 탄력과 보습까지, 토탈 바디 안티에이징이 필요하다면

**설화수 바디로션 백은향.** 250ml, 6만원.

바르자마자 매화의 은은한 향이 몸을 감싸는 듯한 바디로션. 실크 같은 제형으로 체온에 부드럽게 녹여 팔뚝이나 배 등을 마사지하며 바르면 향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구기자, 갈근, 서리태 등을 함유한 한방 복합체인 지선체™가 복부나 무릎 등 피부가 쉽게 처지는 부위의 탄력을 단단하게 잡아주고 해송자유가 보습, 윤기 강화 효과를 제공해 피부를 매끈하게 가꿔준다. 피부가 건조해 바디로션을 수시로 발라야 하는 악건성 피부라면 샤워 후 몸의 수분이 완전히 마르기 전인 3분 이내에 원을 그리며 온몸에 퍼바를 것.



## 시간이 지나도 촉촉하고 향기로운 바디로션을 찾는다면

**헤라 더시그니처 퍼퓸드 바디 로션.** 200ml, 6만5천원.

은은한 꽃향기와 무성한 수풀에서 느낄 수 있는 신선한 풀 내음이 조화로운 향이 인상적이다. 특히 화이트 머스크 베이스 향이 시간이 지날수록 부드럽게 남아 잔향이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한 바디로션. 히비스커스 오일과 로즈 오일이 여름철 뜨거운 별을 찌어 건조해진 피부에 보습 효과를 제공하고 베르가모트와 블랙 커런트 추출물이 영양을 채워준다. 가볍고 산뜻한 제형으로 적은 양만 발라도 빠르게 흡수되며 피부가 끈적이지 않고 보습해 여름철 바디 케어용으로 제격이다.





## 열기 때문에 좀체 잠들 수 없어요

잘 먹고 잘 자도 무더위를 이겨내기 쉽지 않은데, 밤에도 떨어지지

않는 기온 때문에 언제 마지막으로 숙면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피곤하니 입맛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 여름철 건강의 기본인 **꿀잠** 자는 비법을 정리했다.

editor LEE SUNG JIN

이 여름이 오기 전, 기상청은 이미 더위의 기세가 대단할 거라고 예견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평균기온이 높은 것은 물론,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 역시 대폭 늘어날 거라고 발표한 것. 거기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늘 끼는 터라 숨쉬기도 쉽지 않아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려면 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었다.

이런 슬픈 예보는 결코 틀리는 적이 없어서 벌써부터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사람이 적지 않다. 뜨거운 자외선과 연일 이어

지는 폭염도 물론 건디기 힘들지만, 무엇보다 피로운 것은 열대야 때문에 잘 자지 못해 낮 동안 쌓인 피로를 제대로 풀 수 없는 점.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사이의 최저기온이 25°C 이상인 날을 열대야로 정의하는데, 일반적으로 잠들기 좋은 온도가 18~20°C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5°C 이상 차이 나는 셈이니 숙면하지 못하는 것이 어찌 먼 당연하다. 잘 자려면 뇌가 밤이 왔다는 신호를 받아들이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분비해야 하는데, 높은 신체의 열을 식히

기 위해 땀을 흘리다 보면 자율신경계가 계속 활성화되어 잠들기 쉽지 않고, 잠든다고 하더라도 잘 깨기 때문이다. 잠코리아와 알바몬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가한 1천7백38명 중 70% 이상이 이런 열대야 증후군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을 만큼 흔한 현상이지만, 이를 제대로 해소하지 않으면 무기력증, 두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불면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10**

PHOTOGRAPHY: WWW.GETTYIMAGEBANK.COM

### 열대야를 이기는 숙면 노하우

#### ● 습도와 온도를 적정하게 맞춘다

여름철 침실의 습도는 50%, 온도는 25~26°C가 적당하다. 자는 내내 에어컨을 켜두면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생체 균형을 깨뜨려 어지럼증, 두통, 설사 등 이상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잠자리에 들기 전 실내 온도를 낮춘 뒤 에어컨을 끄고 자는 것이 안전하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며 긴장을 푸는 것이 좋는데, 특히 목덜미와 어깨를 따뜻한 물로 마사지하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

#### ● 맥주나 수박은 이른 저녁에

샤워 후 덥다고 시원한 맥주를 들이켜거나 냉장고에 넣어둔 수박을 먹는 것은 금물. 알코올은 자는 동안 탈수 증세를 일으키고, 수박은 잦은 요의로 숙면을 방해한다. 무언가 마시고 싶다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이 바람직하다. 우유에는 숙면을 돕는 트립토판과 멜라토닌이 들어있고, 신경 안정 효과가 있는 칼슘이 풍부해 따뜻하게 마시면 잠을 잘 잘 수 있다. 우유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건강 보조제를 먹는 것이 좋은

방법. 바이탈뷰티의 이지슬립은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개별인정 기능성을 인정받은 미강 주정 추출물을 함유해 수면의 질을 높여준다.

#### ● 잠이 오는 환경을 만든다

잠들기 전에 눈부신 형광등은 끄고 조명의 조도를 낮춰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 것. 은은한 오렌지색 조명이 도움이 된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전자 기기에서 나오는 블루 라이트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 ● 낮잠은 자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밤에 잘 자지 못했다거나 기력이 없다는 이유로 낮에 자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자. 더운 때일수록 취침 시간까지 몸을 피곤한 채로 두는 것이 좋다. 만약 매일 낮잠을 자는 습관이 이미 들었다면 오후 2~3시에 15분 내외로 짧게 자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얇은 이불과 잠옷은 필수

아무리 더워도 밤이 되면 체온이 떨어지므로 이불을 덮지 않고 자면 체온이 낮아져 깽 수박에

없다. 여름엔 통풍이 잘되고 땀을 흡수하는 얇은 천 이불을 배에 덮고 자는 것이 정석. 잠옷 역시 얇고 시원한 소재로 고른다.

### TIP



**설화수 여운팩**  
낮 동안 더위에 지친 피부에 밤사이 수분과 영양분을 집중 공급하는 한방 슬리핑 마스크. 보습막을 형성해 자는 동안 피부가 편안하며 다음 날 생기 있고 윤기 나는 피부를 확인할 수 있다. 120ml, 5만8천원.



#고함량비타민C  
#기미잡티케어  
#안티에이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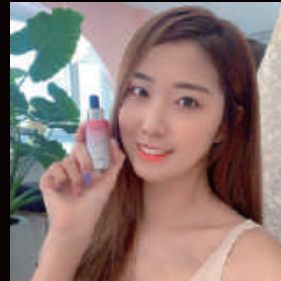
아이오페  
에이스비타민C25,  
순수비타민C를 25% 함유한  
안티에이징 앰플, 피부에 광채와  
브라이트닝 효과를 선사한다.  
23g, 7만원(방문판매 전용).

## 생생한 제품 평가

아이오페의 에이스비타민 C25 앰플을 사용해본 품평단 10인의 솔직한 후기.

@kkamlee12

자외선을 쬐어 잡티가  
부쩍 많아진 피부를  
비타민 가득 앰플로  
케어했어요. 칙칙한  
손이 가는 안티에이징  
앰플, 왠지 요즘 셀피도  
잘 나오는 느낌이에요.  
꼭 써보세요.



@mimi3859

팩 하는 것도 귀찮은  
오즘, 쓰면 쓸수록  
피부결이 좋아져 매일  
손이 가는 안티에이징  
앰플, 왠지 요즘 셀피도  
잘 나오는 느낌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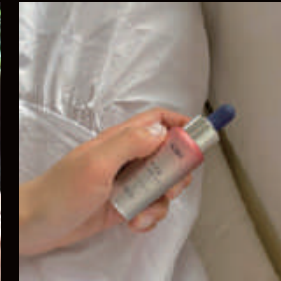
@dressdressing

뜨거운 날씨에 비타민  
가득 관리하기. 아이오페  
에이스비타민 C25  
앰플로 시작했어요.  
끈적이지 않고 피부에  
씩 스며들어 바르기  
간편해요.



@o.o.g.i

여름철 피부 효자템!  
아이오페 에이스비타민  
C25 앰플, 순수비타민C  
성분이 가득 담겨 있어  
밤에 바르고 자면 다음  
날 아침에 안색이 환해진  
느낌을 받아요.



@mabelelelele

존속한 탄력과 광채를  
선사하는 고강도  
안티에이징 앰플! 매일  
하루에 한 번 피부에  
비타민 듬뿍 케어로  
꿀피부로 만들고 싶어요.



@hanugi00

피부 톤이 맑지 않은  
제게 친구가 추천한  
앰플! 며칠간 발라보니  
피부결이 쫘득해지고  
피부 톤도 한층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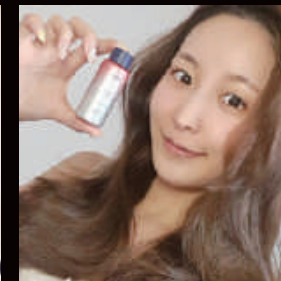
@myoyeon\_\_

아이오페의 비타민  
앰플을 쓴 뒤 안색이  
맑고 밝아져 요즘 피부에  
자신감이 부쩍 생겼어요.  
써본 안티에이징 앰플 중  
가장 만족한 제품!



@jony\_log

오즘 화장이 잘 먹지 않고  
피부가 푸석푸석한 게  
힘이 없어서 안티에이징이  
시급했는데, 아이오페  
비타민 앰플로 열심히  
피부 시간을 되돌리고  
있어요. 스킨케어에 앰플  
하나 더했을 뿐인데  
피부가 화사하고 생기  
도는 느낌! 답답한 느낌  
없이 쫘득하게 마무리돼  
메이크업도 더 잘 받는 것  
같아요.



@jrose\_kk

강도 높은 비타민C 앰플.  
올여름 딱이 한병으로  
안티에이징 관리를  
해보려고요. 특히 눈 밑  
주름이나 팔자주름처럼  
쉽게 놓치고 지나칠  
수 있는 표정 주름이  
도드라지는 부위에  
바르고 있어요.



@yoonhweejin

아이오페 비타민  
라인이면 무조건 GO!  
미끄덩한 제형인데  
바르자마자 피부가 짹  
뽀아들이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기미나 잡티가  
고민이면 #C23으로  
충분하겠지만, 피부  
탄력이 떨어졌다 싶으면  
#C25를 추천해요.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AHN SAE ROM





# 채식을 위한 힙 플레이스

디톡스를 목적으로 채식을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서울에서 떠오르는 비건 레스토랑부터 비건 브루잉까지

건강하고 다채로운 채식을 위한 비건 공간 다섯 곳을 소개한다.

editor AHN SAE ROM

## 플랜트

'한국의 비건 로드'로 불릴 정도로 수많은 비건 레스토랑이 자리 잡은 이태원의 터줏대감 플랜트. 사회 전체의 건강한 비건 라이프를 추구하는 경영 마인드로 플랜트를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운영한 이 미파 대표는 콩 고기나 대체육을 넣은 버거, 채소와 두부를 이용한 샌드위치 등 다양한 메뉴로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단골들의 입맛도 사로잡았다. 부드럽고 촉촉한 비건 브라우니는 강추 메뉴.

주소 서울시 용산구 보광로 117 2층  
문의 02-749-1981



## 베제투스

"다이어트 음식이 아니라 즐겁게 즐기는 하나의 라이프스타일이예요." 베제투스 대표 정다정의 말이다. 해방촌에 자리 잡은 비건 레스토랑 베제투스. 채식이 맞나 싶은 버거나 맥앤치즈, 파스타 등의 메뉴는 100% 비건 식이다. 글루텐 프리 음식도 있으며, 감칠맛과 식감이 일반 음식과 차이가 별로 없어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 호박 파이나 브라우니 등 비건 디저트도 있다.

주소 서울시 용산구 신촌로 59  
문의 070-8824-5959

## 푸드더즈매터

눈길을 사로잡는 트렌디한 인테리어부터 채식의 편견을 깨는 다양한 음식까지 매력 넘치는 곳이다. 서래마을에 터를 잡은 푸드더즈매터는 가오픈 시점부터 SNS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메뉴판에 있는 모든 음식은 100% 비건식. 비건 관자 갈릭 파스타나 콜리플라워 스테이크 등 양식을 기본으로 한 주식 메뉴뿐 아니라 스콘이나 케이크, 직접 구운 과자 등 디저트도 준비돼 있다. 푸드 더즈매터에서 운영하는 이팅더즈매터(eatingdoesmatter.co.kr)에서는 전 세계에서 엄선한 비건 젤리와 초콜릿 등 귀여운 간식도 구매할 수 있다(이팅더즈매터의 수익 일부는 환경보호를 위해 기부한다).

주소 서울시서초구 서래로1길 10  
문의 02-593-3322



## 브루독

채식주의 단체인 비건 소사이어티에 가입되어 있는 스코틀랜드의 수제 맥주 브랜드. 이태원에 위치한 한국 지점에서는 양조 과정에서 동물성 재료를 제외한 비건 맥주를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다. 비건 맥주 이외에 두부 버섯, 치즈 없는 피자 등 비건 안주도 함께 즐길 수 있는데, 달걀과 유제품을 먹는 채식주의자를 위한 화이트 트레시 피자나 할라펠 버거, 버터 콜리플라워가 베스트 메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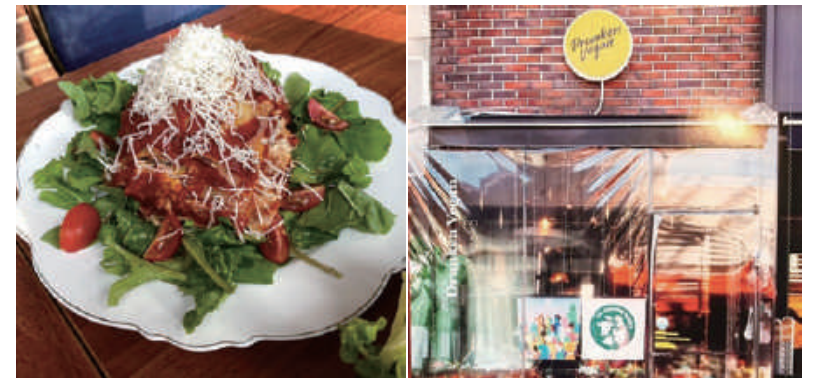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27나길 40  
문의 02-797-1240

## 드링크 비건

비건 푸드 하먼 샐러드라는 편견을 단번에 바꿔줄 비건 술집 드링크 비건. 비건 요리와 술을 기본으로 하는 비건 바에 걸맞게 숙이 든 든한 스페셜 누룬지탕과 프라이드 콜리플라워 등 시그니처 메뉴는 물론 칵테일과 와인까지 모두 비건 메뉴로 구성돼 있다. 베스트 메뉴는 비건 라자냐. 소스를 흥떡 머금은 라자냐 면은 두부로 만들고 그 위에 올린 담백한 치즈 역시 비건 푸드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30길 13  
문의 070-7543-8101

PHOTOGRAPHY: 각 사진 제공







# 채식을 위한 힙 플레이스

디톡스를 목적으로 채식을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서울에서 떠오르는 비건 레스토랑부터 비건 브루잉까지

건강하고 다채로운 채식을 위한 비건 공간 다섯 곳을 소개한다.

editor AHN SAE ROM

## 플랜트

'한국의 비건 로드'로 불릴 정도로 수많은 비건 레스토랑이 자리 잡은 이태원의 터줏대감 플랜트. 사회 전체의 건강한 비건 라이프를 추구하는 경영 마인드로 플랜트를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운영한 이 미파 대표는 콩 고기나 대체육을 넣은 버거, 채소와 두부를 이용한 샌드위치 등 다양한 메뉴로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단골들의 입맛도 사로잡았다. 부드럽고 촉촉한 비건 브라우니는 강추 메뉴.

주소 서울시 용산구 보광로 117 2층  
문의 02-749-1981



## 베제투스

"다이어트 음식이 아니라 즐겁게 즐기는 하나의 라이프스타일이예요." 베제투스 대표 정다정의 말이다. 해방촌에 자리 잡은 비건 레스토랑 베제투스. 채식이 맞나 싶은 버거나 맥앤치즈, 파스타 등의 메뉴는 100% 비건 식이다. 글루텐 프리 음식도 있으며, 감칠맛과 식감이 일반 음식과 차이가 별로 없어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 호박 파이나 브라우니 등 비건 디저트도 있다.

주소 서울시 용산구 신촌로 59  
문의 070-8824-5959

## 푸드더즈매터

눈길을 사로잡는 트렌디한 인테리어부터 채식의 편견을 깨는 다양한 음식까지 매력 넘치는 곳이다. 서래마을에 터를 잡은 푸드더즈매터는 가오픈 시점부터 SNS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메뉴판에 있는 모든 음식은 100% 비건식. 비건 관자 갈릭 파스타나 콜리플라워 스테이크 등 양식을 기본으로 한 주식 메뉴뿐 아니라 스콘이나 케이크, 직접 구운 과자 등 디저트도 준비돼 있다. 푸드 더즈매터에서 운영하는 이팅더즈매터(eatingdoesmatter.co.kr)에서는 전 세계에서 엄선한 비건 젤리와 초콜릿 등 귀여운 간식도 구매할 수 있다(이팅더즈매터의 수익 일부는 환경보호를 위해 기부한다).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래로1길 10  
문의 02-593-3322



## 브루독

채식주의 단체인 비건 소사이어티에 가입되어 있는 스코틀랜드의 수제 맥주 브랜드. 이태원에 위치한 한국 지점에서는 양조 과정에서 동물성 재료를 제외한 비건 맥주를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다. 비건 맥주 이외에 두부 버섯, 치즈 없는 피자 등 비건 안주도 함께 즐길 수 있는데, 달걀과 유제품을 먹는 채식주의자를 위한 화이트 트레시 피자나 할라펠 버거, 버터 콜리플라워가 베스트 메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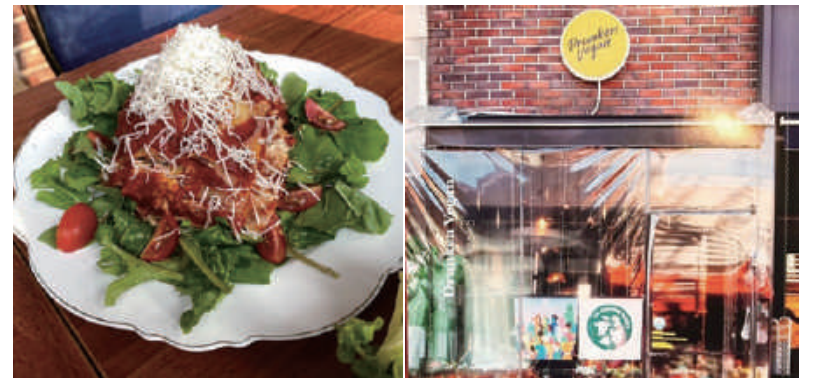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27나길 40  
문의 02-797-1240

## 드링크 비건

비건 푸드 하먼 샐러드라는 편견을 단번에 바꿔줄 비건 술집 드링크 비건. 비건 요리와 술을 기본으로 하는 비건 바에 걸맞게 속이 든든한 스페셜 누룽지탕과 프라이드 콜리플라워 등 시그니처 메뉴는 물론 칵테일과 와인까지 모두 비건 메뉴로 구성돼 있다. 베스트 메뉴는 비건 라자냐. 소스를 흥떡 머금은 라자냐 면은 두부로 만들고 그 위에 올린 담백한 치즈 역시 비건 푸드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30길 13  
문의 070-7543-8101

PHOTOGRAPHY: 각 음식점 제공





# 여름의 향기:

백일홍, 그래도 피는 꽃으로 살아간다.

writer JUNG HYUN JOO

‘그 여름 나무 백일홍은 무사하였습니다.’ 이성복 시인의 <그 여름의 끝>을 여는 문장이다. 여러 차례 폭풍이 지나가도 백일홍은 붉은 꽃을 매달았다. 그 여름, 시인은 폭풍 한가운데 있었다. 절망은 붉은 꽃이 되어 피어 올랐고 폭풍이 불고 다시 불어도 쓰러지지 않았다. 넘어지기도 했지만 타고 오르고 매달리며 피어났다. 시인은 불을 뿜듯 나무와 꽃이 자란다고 적었다. 작은 마당이 핏빛 꽃으로 가득 찰 때 시인의 절망은 비로소 끝이 났다.

<그 여름의 끝>. 여름이 시작될 때 한 번, 끝날 때 한 번 꺼내 읽는 시집이다. 처음은 대학 1학년 여름이었다. 빈 강의실에 앉아 다음 수업을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동기 하나가 들어와 내 뒷자리에 앉았다. 강의실은 2층이었고 창밖에는 나무가 울창했다. 소나기가 쏟아졌다. 수십 년을 그 자리에서 컸다는 플라타너스는 잎이 크고 무성했다. 잎이 무성해 창을 열어도 비가 들이치지 않았다.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할 땐 흄냄새가 나더니 나중엔 초록 냄새가 났다. 비에 젖은 나무는 눈이 시큰할 만큼 초록색을 띠었다. 빗소리, 초록 냄새에 젖어 창을 바라보고 있는데 뒷자리 동기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달려 나갔다. 곧 수업이 시작될 텐데 걱정하며 돌아보았다. 달려 나간 그는 달려 들어왔다. 손에 시집 한 권이 들려 있었다. 1층 구내서점에서 사 왔다고 했다. 뒷자리에 앉아 내게 시를 읽어주었다. 그 여름의 끝. 해마다 여름이면 읽는다고 했다.

백일홍, 6월쯤 피어 10월쯤 지는 꽃. 100일간 붉다고 해서 백일홍이라 한다. 여름 내내 피는 꽃이다. 꽃향기는 희미해 오히려 비 냄새가 떠오른다. 여름이 시작될 때 한 번, 끝날 때 한 번 시집을 꺼내 읽으며 기억 저편의 이 장면을 떠오른다. 비 냄새 나는 플라타너스의 초록. 해마다 보고 큼큼대는 여름의 향기, 여름의 장면.



최근 소설집을 읽다가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그 여름의 끝>이 떠올랐다. 정확히 말하면 <그 여름의 끝>을 처음 만나던 날이 기억났다.

강화길의 소설 <화이트 호스>는 여성 서사를 담고 있다. 여성이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고 마음으로 읽는 세상의 이야기. 2020 젊은 작가상 대상작인 <음복>은 제삿날을 배경으로 한다. 가족이 모인 자리. 많은 것은 한 사람을 위해 준비되었다. 망자가 아닌 살아 있는 사람, 집안의 하나뿐인 아들 정우. 여자 주인공이 결혼하고 지내는 첫 제사였다. 제상 위에 뜬금없이 베트남 음식이 올려져 있었다. 시부모님은 돌아가신 분이 좋아해서 올렸다고 했지만 제상을 물리고 보니 의문의 음식을 신나서 먹어 치우는 것은 남편 정우뿐이었다. 늦은 저녁을 먹으며 참석한 사람의 안부를 나누고 참석하지 않은 자의 안부를 묻는다. 정우가 평소 ‘좋은 사람’이라 말하던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 잠깐의 대화를 통해 해주인공은 알게 된다. 정우의 ‘좋은 사람’들에게 정우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자신을 피하기 위해 그들이 오지 않았다는 걸 정우는 몰랐다. 혼자만 좋아하는 베트남 음식이 난데없이 제상에 올라가도, 실은 자신을 먹이기 위해 준비했다는 걸 정우는 몰랐다. 자신만 먹고 있다는 것도 몰랐다. 그는 모르는 것 투성이였다. 몰라도 되었다. 가부장제 아래 태어난 오직 하나의 아들이라면, 수많은 남성들의 ‘눈치 없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이다. 눈치 볼 필요가 그들에게 없었다. 기색을 살필 줄 모르니 배려나 공감도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태어났더니 많은 것이 자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심지어는 독점할 권리를 가진 자로 그들은 살아왔다.

강화길의 주인공이 특별한 것은 다음과 같은 독백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는 아마 영원히 모를 테니까. 뭔가를 모르는 너. 누군가를 미워해본 적도 없고, 미움받는다는 것을 알아챈 적도 없는 사람. 잘못을 바로 시인하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 너는 코스모스를 꺾은 이유가 사실 당신 때문이라는 걸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누가 나를 이해해주는 나쁜 의심을 언젠가 돌려주고 말겠다는 비릿한 증오를 품은 사람도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지.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그래.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한다. 때문에 나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 네가 진짜 악역이라는 것을.”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거절당할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 솔직한 마음을 말해도 거부당할까 걱정하지 않는 사람. 한껏 보호받으며 성장하며 누군가를 미워할 필요가 없는, 억울할 것도 없는, 구김 없는 마음. 여성 서사 대부분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야 말 남성상에 대해 강화길의 주인공은 ‘지금도 사랑한다’고 말한다. <음복>을 읽고 나면 <가원>인데, 역시나 여자 주인공은 남성을 사랑하고 있다. 이번에는 외할아버지다. 눈치 없고 자기만 아는 면에서는 음복의 남편과 닮아 있다.

<가원>은 고명헌 서예가 석당의 집안 이야기다. 주인공은 치과를 개원하려고 준비 중인 연정이라는 여성이다. 석당의 아들 박윤보는 연정의 외할아버지다. 박윤보는 집안에 하나씩은 있는 문제적 존재다. 아버지 마음에도, 이름에도 어둠을 드리우는 존재로 성장했다. 하는 일마다 실패했으나 현실감각은 생가지 않았다. 몽상가 곁에 생활력 강한 아내가 있었다. 연정의 외할머니는 화장품 외 판원으로 살며 그럭저럭 돈을 모았다. ‘낮장 한번 잔 적 없다’는 것을 자부심으로 아는 종류의 사

람이었다. 근검은 물론 절약이 뻥속까지 박혀 있었고 자신에게는 물론 손녀에게도 엄격했다. 전교 1등을 하고 돌아와도 기뻐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유지해’라고 차갑게 말할 뿐이었다. 없는 돈에 과외를 시키고 학원을 보내고 성적이 떨어지면 매섭게 몰아치며 성공한 여성이 되기를 강요했다. 할아버지는 무엇을 했는가. 석당은 세상을 떠나며 정원이 특히 아름다운 한옥을 한 채 남겼다. 이름을 가원이라 불렀다. 형제들은 직업이 없는 연정의 외조부에게 한옥 관리를 맡겼다. 연정은 할아버지와 가원에서 노닐었다. 할아버지가 담배 연기로 만들어주던 동그라미미저 특별하게 기억했다. 나란히 앉은 연정의 가방에서 영어 학원비를 훔쳐내는 할아버지였는데도 말이다. 할아버지는 죽기 전까지 담배만 피웠다. 연정은 할아버지를 라일락 냄새로 기억했다. 라일락 담배를 그는 즐겨 피웠다. 갖은 종류의 무능과 비겁을 지닌 할아버지를 손녀 연정은 왜 좋아했을까. 생계를 책임지고, 학원비를 벌어들여 등록금을 대준 할머니는 싫어했으면서.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난 뒤 연정은 치과 의사가 되었다. 손녀가 자립하자 할머니는 일을 그만두었다. 평생 놀 거라고 하지만 휴식은 길지 않았다. 치매가 찾아왔다. 집을 나간 할머니를 찾아 연정은 도시 곳곳을 헤맸다. 마침내 도달한 곳은 이제 주인이 바뀌고 폐허가 되어버린 가원이었다. 썩대밭이 된 정원에 할머니가 서 있다. 추운 날인데 여름 원피스를 입고서. 할머니가 돌아가고 싶었던 때는 어떤 여름이었을까.

<가원>을 읽다가 <그 여름의 끝>을 떠올린 것은 오랜만에 동기를 만난 탓이다. 서점이 하나일 때는 자주 찾아와 좋은 밥을 사주더니 서점이 두 개가 되자 연락이 뜸했다. 식당 의자에 앉자마자 그는 야단치듯 말했다. “곱게 하나만 하지, 뭐 하러 사서 고생을 하노?” 순간 그는 <음복>의 정우였고 나는 <가원>의 외조모가 되었다.

여름 한복판에 <그 여름의 끝>을 펼쳐 읽는다. 백일홍은 백 날을 두고 끈질기게 핀다. 개인적으로는 고되고 사회적으로도 혹독한 여름이지만 계속 피겠다. 지지 않겠다 생각한다. 우리의 절망이 끝나는 날까지 꽃을 계속 피우고 가득 피워야지. 고운 꽃이라 보지 않고 끈질기게 피는 꽃이라 백일홍을 봐야지. 오가다 백일홍을 마주치면 멈춰 서야지. 희미해서 스쳤던 그 꽃의 향기를 맡아보아야지. 여름의 향기로 기억해야지. 백일홍 향기가 스칠 때마다 ‘그래도’ 피는 꽃으로 살아야지, 고덕일 테다. **D**

<향장>은 매달 <불륨을 높여요>, <별이 빛나는 밤에> 등 많은 라디오 프로그램의 원고를 담당했던 작가이자 독립 서점 ‘리소본’을 운영하는 정현주의 에세이를 연재합니다.



ITEM 이달의 추천 제품

**1** **설화수 수분영양크림**  
피부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자음영양단™과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포고영, 해송자유가 함유돼 수분을 가득  
머금은 팽팽한 피부로 가꿔준다. 50ml, 7만원.



**2** **바이탈뷰티 명작수**  
기력을 잃기 쉬운  
계절, 활기를 보충해줄  
프리미엄 홍삼 앰플.  
20g×50개, 26만원.

**3** **아모레퍼시픽  
보태니컬 수딩 토너**  
왕대나무 수액이  
자극받은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키고,  
피부에 필요한 수분을  
빠르고 풍부하게  
공급한다. 200ml, 9만원.



이달의  
필수템 미리보기

EDITOR'S  
PICK!

에디터가 간간하게 고른 8월의 필수템.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7** **헤라 선메이트  
엑셀런스**  
SPF50+/PA++++.  
#로지글로우  
강력한 자외선 차단  
효과는 기본, 은은한  
피그먼트가 함유되어  
고급스러운 광채를  
부여해주는 자외선  
차단제. 40ml,  
4만5천원.

**6**

**헤라 유스 액티베이팅  
셀 세럼** 도시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단  
하루만에 놀라운  
안티에이징 효과로 탄력  
있고 화사한 피부로  
가꿔주는 세럼. 40ml,  
9만5천원.



**4**

**헤라 루즈 홀릭  
익센셔널**  
#248 모즈 코랄,  
#116 드레시 로즈  
우아한 실루엣의 디자인,  
풍부한 질러와 부드러운  
텍스처의 완벽한 조합을  
선사하는 럭셔리 립스틱.  
각각 3g, 3만8천원.



**5**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강인한 인삼 에너지를 가득  
담아 여름철 활기를 잃은  
피부에 활력과 탄탄한  
탄력을 불어넣는다.  
50ml, 20만원.

GOUTAL  
PARIS  
AUTHOR OF PERFUMES



GOUTALPARIS.COM

TENUE DE SOIREE BODY CREAM



# HERA

## YOUTH ACTIVATING CELL SERUM

PYRUVATE + ABCELL™

ADVANCED CELL SCIENCE™

**헤라 유스 액티베이팅 셀 세럼**

**in JUST 1 DAY**

피부장벽\*(+83.5%) / 윤기(+4.8%)  
탄력(+5.8%) / 투명도(+3.8%)